

청소년의 학대경험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중심으로 -

류보순*, 김용섭**

The Influence of Adolescence Abuse Experience to Suicide : Focusing on Policy Implications

Bo-Soon Ryu *, Yong-Seob Kim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학대경험, 자아존중감, 가족탄력성, 자살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 검증으로 학대 경험 청소년의 자살예방을 위한 가족탄력성 향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전남 지역의 세 개 군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600명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53부를 제외한 총 547명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척도는 Murray A. Straus (1979)의 아동학대, Beck, Kovacs & Weissman(1979)의 자살, Coopersmith(1967)의 자아존중감, Boehm (2007)의 가족탄력성 이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상관관계, ANOVA,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학대경험 청소년은 54.2%, 학대유형에 따른 자살빈도는 신체적 학대의 경우가 많았다. 둘째, 회귀분석 결과 학대경험이 자살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으로 학대경험이 높을수록 자살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학대경험은 자아존중감을 통해 자살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셋째, 가족탄력성은 학대경험이 자살에 미치는 부적 영향과 높은 자존감이 자살에 미치는 부적 영향으로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 Keyword : 학대경험, 자아존중감, 자살, 가족탄력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family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of abuse experience, self-esteem, family resilience, and suicide, and make suggestion for policies to improve family resilience to prevent suicide of the youth with abuse experience. For

· 제1저자 : 류보순 · 교신저자 : 김용섭

· 투고일 : 2012. 10. 08. · 심사일 : 2012. 10. 12. · 게재확정일 : 2012. 10. 15.

* 고구려대학교 보건복지과(Dept. of Health Welfare, Koguryeo College)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Dept. of Administration & Welfare, Chosun University)

thi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600 people at middle and high schools in three districts in Jeollanamdo, and, except 53 copies, total 547 copies used. The scales used child abuse of Murray A. Straus (1979), suicide of Beck, Kovacs & Weissmen(1979), self-esteem of Coopersmith(1967), and family resilience of Boehm (2007). The results: First, 54.2% of experienced abuse, and, as for the suicide frequency based on abuse types, physical abuse scored high. Second, th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abuse experience has a direct positive effect on suicide, and higher abuse experience led to more suicide. Also, abuse experience turned out to have indirect effect on suicide through self-esteem, which proves the mediated effect of self-esteem. Third, family resilience was proven to have mediated effect as abuse experience has a negative effect on suicide, and high self-esteem has a negative effect on suicide.

▶ Keyword : abuse experience, self-esteem, suicide, family resilience

I.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학대의 발생장소는 가정이 많으며 학대행위자 역시 부모가 가장 많다. 이처럼 가정 내에서의 청소년학대가 근원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청소년 스트레스는 청소년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에 장. 단기적인 악 영향을 초래하며 자아존중감 손상과 함께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자살에 까지 중대한 영향을 가져온다. 한편으로, 청소년 자살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15~19세)사망원인 1순위가 자살로 2009년부터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이 OECD국가 중 1위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였으며, 주요원인은 성적문제, 외로움과 고독, 가정불화, 경제적 어려움, 염세비관, 등이 많다 [1].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면 가족 환경과의 관계를 간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의 가족 환경은 가장 안전하고 최적의 공간으로서 청소년기의 정서와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나, 현대의 가족환경은 이혼율 증가 등의 여러 원인으로 발생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해체로 역기능적이고 부적응적인 가족환경의 위기에 노출되어 청소년의 학대경험이나 자아존중감의 저하 등으로 인해 자살의 위험상황에 처해 있을 때 보호요인으로서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 가족구성원의 적응을 돕고, 변화에 대응하여 혼란에 빠지지 않게 저항하도록 돕는 가족의 특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가족탄력성이 잘 발휘 된다면 이러한 스트레스 역경을 극복하는데 유연성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족탄력성의 접근은 고위험에 처한 가족들에게 성공적인 적응을 하도록 돕는 미래 지향적, 강점 관점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이 가족탄력성을 고위험에 직면한 가족에 적용하는 연구들이 많으나 학대경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대경험, 자아존중감, 가족탄력성, 자살의 관계에서 학대경험과 자살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학대경험 청소년의 가족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의 개발과 향상으로 자살을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자살

자살은 자살생각, 자살시도, 완료된 자살의 연속상에 존재한다. 이렇게 자살과 관련된 용어는 한 가지 상황만으로 개념화 시킬 수 없는 연속적인 과정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전 생애에서 자살생각과 자살시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시기이다. 자살의 원인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가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보고한 2006~2011년 최근 6년 동안의 청소년 자살 원인은 가정불화(33.8%), 염세비관(18.4%), 성적비관(12.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 가족문제가 청소년 자살의 원인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다.

2. 청소년의 학대경험과 자살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중· 고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인용 등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아동이란 용어보다는 청소년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청소년학대란 신체적, 언어적 폭력, 성적인 괴롭힘은 물론 부모의 애정결핍 등 정서적 학대까지 포함 하는 경우가 많다.

2000년 1월 개정된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 2조 제 4항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을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유기와 방임 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학대는 학대의 종류나 유형을 막론하고 아동의 발달 측면에 악영향과 불안, 우울과 같은 심리, 정서적 후유증을 나타내며, 성인이 된 후 가정폭력이나 자녀학대와 같은 폭력의 대물림과 또래폭력이나 데이트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3]. 그래서 이러한 가정 내의 학대 경험은 그 당시나 그 이후에도 자살생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4].

3. 청소년의 학대경험과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이 자신에 대해 내리는 평가이며, 자신을 능력 있고 의미 있고 성공적이며 가치 있는 존재로 믿는 정도로 [4]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부모, 교사, 친구 등의 영향을 받아 개인의 행동이나 목표지향적인 행동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에서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자아기능의 손상, 공격성 표출,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손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 하고 있고 [5], 또한 아동학대는 자아 존중감의 손상을 가져온다고 밝혔다 [6].

4.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자살

자아존중감과 자살과 관련된 청소년의 자아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자살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였다(4). 따라서 부정적인 자기평가, 낮은 자아존중감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7].

5. 가족탄력성과 자살

탄력성(Resilience)이란 튀어 오르는 행위, 외부의 압력에 의해 변형된 물체가 이전의 크기와 모양으로 되돌아 가는 능력, 탄력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은 압력의 범위 내에서 탄체가 회복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로 정의하고 탄력성을 사람에게 사용할 때는 허약함 또는 우울 후 용기 또는 활기를 얻기 쉬움을 뜻한다.

문헌적 정의로서 탄력성을 스트레스 하에서 부적응의 위험을 중재하는 요인으로 정의하였으며 요인을 개인, 가족,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8].

가족탄력성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보면, 가족탄력성은 위기상황에 직면해서 적응을 이루고, 변화에 대응하여 혼란에 빠지지 않게 저항하도록 돕는 가족의 특성이라고 정의 하였다 [9]. 가족탄력성은 기능적 단위로서의 가족 안에서 경험하는 대처와 적응의 과정을 의미한다고 하며, 가족의 신념체계(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긍정적 시각, 초월과 영성)와 조직유형(융통성, 연결성, 사회 및 경제적 자원, 의사소통 과정(명확성, 개방적 정서표현,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을 포함하는 개념적 틀로 조직화 시켰다 [10].

선행연구들을 보면 최근 부모로부터 학대가 청소년의 가족탄력성을 낮추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하였으며 한편, 가족탄력성이 청소년 자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가족탄력성이 청소년 자살을 완화시키는 부적 영향이 유의미함을 밝혔다 [11], 이와 같이 여러 연구들에서 부모로부터의 청소년 자살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주로 탄력성이라는 하나의 전체 개념으로 검증이 되고 있는바,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역기능적 환경 개선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 자살과 관련하여 청소년이 학대 경험이나 자아존중감의 저하 등으로 위험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가족탄력성의 향상은 역경을 극복하는데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대경험 청소년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매개로 가족탄력성과 학대경험 청소년의 자살과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III. 연구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학대경험이고 종속변수는 자살이다. 매개변수는 자아존중감이며 조절변수는 가족탄력성이다.

본 연구의 모형은 다음의 <그림 1>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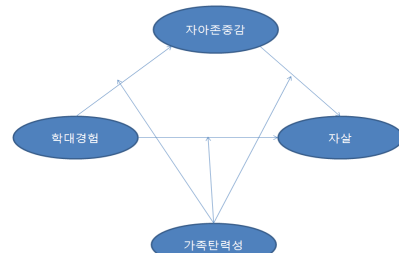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2. 가설

- 1) 학대경험은 자살을 증가시킬 것이다.
- 2) 학대경험은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킬 것이다.
- 3) 높은 자아존중감은 학대경험과 자살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 4) 학대경험이 자존감에 미치는 부의 영향은 가족탄력성에 따라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 5) 학대경험이 자살에 미치는 부의 영향은 가족탄력성에 따라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 6) 높은 자아존중감이 자살에 미치는 부의 영향은 가족탄력성에 따라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3. 측정도구

3.1. 아동학대

본 연구에서의 아동은 전술한 바와 같이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 아동학대는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아동학대 척도는 Straus, M. A.(1980) [12]의 Conflict Tactics Scales(CTS) 척도를 김재엽 외(2008) [13]가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어려운 총기 사용 등의 문항을 제외한 8가지 문항으로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CTS 측정도구는 갈등관리행동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척도로서 폭력 또는 학대를 측정하는 다수의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난 1년간 언어적, 신체적 폭력 경험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부모님이 나에게 욕설 등의 심한 말을 하였다'의 언어적 폭력(1개 문항)과 '물건을 집어던졌다' '손으로 뺨을 때렸다' 등의 신체적 폭력(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문항의 4점 Likert 식 척도이다.

김재엽 외(2008) [1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1$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51$ 이었다.

3.2. 자살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진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를 포함하여 자살이라 개념화 하였다. 자살에 대한 측정도구로 Beck, Kovacs & Weissman (1979) [14]의 Scale for Suicidal Ideation(SSI)을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 자살생각 (6개 문항)과 자살계획 (5개 문항), 자살시도 (1개 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식 척도이다. 이 측정도구는 임상면접을 하여 피험자가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일이 면접이 어려워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및 김중술(1990) [15]이 자기 보고형 질문지로 변형하면서 19문항의 척도로 구성한 것을 최태산(1997) [16]이 요인분석을 통해 채택한 14문항 중 12문항과 SIS(Suicide Ideation scale)의 자살시도 문항 1개를 가져

와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태산(1997) [1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26$ 이었다.

3.3.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느낌과 평가의 정도 및 자기 수용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Coopersmith(1967) [17]가 개발하고 강종구(1986)가 번안한 것을 장용환, 송지혜(2011) [4]가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Likert 4점 척도로 평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음을 의미 한다.

장용환, 송지혜(2011) [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26$ 이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52$ 이였다.

3.4. 가족탄력성(Family Resilience)

본 연구에서의 가족탄력성 척도는 Boehm 외 (2007) [18]가 사용한 Resiliency model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at risk 도구와 김미옥(2001) [19]이 사용한 도구를 종합하여 이금옥(2008) [20]이 재구성한 20문항의 4점 Likert식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박재연(2010) [11], 이금옥(2008) [20]의 척도 중 형제와 관련된 질문 2문항이 최근 청소년들 중 형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 부적합한 질문으로 판단되어 삭제한 18문항의 설문지를 사용 하였다. 총 18문항중 4,5,7,10,14,16,18문항(총 7문항)은 역산 채점하였다 하위요인은 가족의 응집력(7개 문항), 가족 간 긍정적 수용(6개 문항), 가족의 자원(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탄력성의 특성으로는 가족원의 지지와 사랑, 자녀 보살핌, 자녀존중, 가족원이 함께 하는 시간, 가정에서의 일관된 규칙, 명확한 한계, 관심, 가정경제력, 가족의 경제 활동, 의사소통, 선택의 자유, 믿음, 자녀수, 돈독한 애정, 형제자매의 결손력, 가족이 어려울 때 도움받기, 부정적인 변화 받아들이기, 가족화목이 포함되어 있다.

박재연(2010) [1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6$ 이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01$ 이였다.

4.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방법

본 조사의 연구의 대상은 2012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 까지 약 2주 동안 세 개 군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600명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대상 청소년이 직접 설문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본 연구에서는 회수된 설문지 600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53부는 제외하고 총 547부를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실증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여 문항간의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셋째, 다중 공선성 여부와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s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넷째, 부모동거여부에 따른 학대경험의 차이, 학대경험에 따른 자살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하였다.
 다섯째,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 [21]의 매개변수 검증방법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든 유의수준 $p < 0.05$ 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V.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표 1.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및 개인 요인적 특성
 Table 1. Socio-Demographic & Individual Factoria Characteristic of the Subject for Investigation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272 49.7
	녀	275 50.3
	계	547 100
학업성적	매우 잘 한다	26 4.8
	잘 한다	180 32.9
	못 한다	277 50.6
	매우 못 한다	64 11.7
	계	547 100
생활주준	좋다	86 15.7
	좋은 편이다	124 22.7
	중간 이다	265 48.4
	나쁜 편이다	62 11.3
	나쁘다	10 1.8
	계	547 100
부모동거여부	부모님 두 분과 같이	426 77.9
	아버지만 같이	46 8.4
	어머니만 같이	43 7.9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는다	32 5.9
	계	547 100
술 마셔 본 경험	그렇다	254 46.4
담배 피워본 경험	있다	67 12.2

약물 사용 경험	있다	19	3.5
----------	----	----	-----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개인 요인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제시한 조사대상자 총 547명중 남녀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 학업성적은 '못 한다' 277명(50.6%)가 가장 생활수준은 '중간이다' 265명(48.4%)가 가장 많았다.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부모 두 분' 과 같이 동거하는 경우가 426명(77.9%)이고, '아버지만 같이 동거하는 경우 46명(8.4%)이었다. '어머니'만 같이 동거하는 경우 43명(7.9%)이고,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학생'이 32명(5.9%)으로 나타났다.

2. 각 변수별 실태

2. 1. 청소년 학대경험의 유형 실태

학대경험 유형 실태는 청소년이 지난 1년 동안 부모로부터 겪은 신체적·정서적 학대경험 유형에 따른 빈도 실태를 <표 2>에서 제시 하였다.

표 2. 청소년 학대경험 유형 빈도
 Table 2. Frequency of Adolescence Abuse Experience Type N 547

유형	빈도(명)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언어적 학대	259	47.4	1.660	.809
신체적 학대	33.3	6.8	1.238	.370

청소년이 지난 1년 동안 부모로부터 겪은 신체적·정서적 학대경험은 54.2%(292명)이다. 이중 언어적 학대가 (259명), 신체적 학대가 6.8%(33.3명)로 나타났다.

2. 2. 청소년의 학대경험 빈도 실태

학대경험 청소년이 지난 1년 동안 부모로부터 겪은 언어적 학대경험 빈도와 신체적 학대경험 빈도 실태를 <표 3>과 <표 4>에서 제시하였다.

표 3. 청소년의 언어적 학대경험 빈도
 Table 3. Frequency of adolescence's Verbal Abuse Experience

유형	빈도	퍼센트
언어적 학대	없음	288 52.7
	1~2회/년	176 32.2
	1회이상/주	66 12.1
	거의 매일	17 3.1
	전체	547 100.0

<표 3>에서 제시한 학대경험 청소년이 지난 1년 동안 부모

로부터 겪은 언어적 학대경험 47.4%중 '거의 매일'이 3.1%(17명), '1주일에 1회 이상'이 12.1%(66명), '1년에 1~2회'가 32.2%(176명)로 나타났다.

표 4. 청소년의 신체적 학대경험 빈도
Table 4. Frequency of adolescence's Physical Abuse Experience

	유형	빈도	퍼센트
신체적 학대	없음	511	93.5
	1~2회/년	31	5.8
	1회이상/주	1.33	0.8
	거의 매일	1	0.2
	전체	547	100.0

〈표4〉에서 제시한 학대경험 청소년이 지난 1년 동안 부모로부터 겪은 신체적 학대경험6.8%중 '거의 매일'이 0.2%(1명), '1주일에 1회 이상'이 0.8%(1.33명), '1년에 1~2회'가 5.8%(31명)로 나타났다.

2. 3. 청소년의 부모 동거 여부와 학대경험의 차이

청소년의 부모 동거 여부와 언어적, 신체적 학대 빈도를 분산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를 〈표 5〉에서 제시 하였다.

표5. 청소년의 부모 동거 여부와 학대경험의 차이
Table 5. Difference between adolescence's Cohabitation with Parents or not and Abuse Experience

구분	1.양부모 가족(N=426)		2.한 부모 가족(N=89)		3.부모님과 비 동거(N=32)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언어적 학대	.930	.260	.900	.303	.906	.296
신체적 학대	.070	.256	.101	.303	.093	.296

〈표 5〉에서 제시한 학대경험 청소년의 부모 동거 여부에 따른 학대경험의 차이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언어적 학대는 양부모가족(.930), 부모님과 비동거(.906), 한부모 가족(.900)순으로 나타났다. 즉, 양부모 가족과 생활하는 청소년에서 언어적 학대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신체적 학대는 한부모 가족(.101), 부모님과 비동거(.093), 양부모 가족(.070)순으로 나타났다. 즉, 한부모 가족과 생활하는 청소년에서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언어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는 부모의 동거 여부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부모 동거 여부와 학대 빈도는 특별히 더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2. 4. 학대경험 청소년 유형에 따른 자살의 차이

지난 1년 동안의 학대경험 청소년의 자살빈도를 분산분석을 통해 〈표6〉에서 제시하였다.

표 6 . 학대경험 청소년 유형에 따른 자살의 차이
Table 6. Difference in Suicide consequent on Abuse Experience adolescence's Type

구분	1.일년에 한두번(N=34)		2.주1회 이상(N=7)		3.거의 매일(N=2)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언어적 학대	.677	.475	.286	.488	1.000	.000
신체적 학대	.324	.475	.714	.488	.000	.000

〈표 6〉에서 제시한 학대경험 청소년의 자살의 빈도를 학대 유형별 평균을 보면 언어적 학대경험 청소년의 자살의 경우 1년에 한 두번(.677), 주1회 이상(.286), 거의 매일(1.000)로 나타났다. 즉, 언어적 학대경험 청소년의 경우 자살은 1년에 한두번이(.677)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경험 청소년의 경우 자살은 1년에 한 두번(.324), 주1회 이상(.714), 거의 매일(.000)로 나타났다. 즉, 신체적 학대경험 청소년의 경우 자살은 주1회 이상(.714)이 가장 많았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 때 신체적 학대경험의 청소년에서 자살의 횟수가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2. 5. 자이존증감의 매개효과 검증

학대경험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이존증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 [21] 의 매개변수 검증방법을 실시하였다. Baron과 Kenny(1986)의 검증방법은 변수 하나씩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적절한 방법이다. 매개변수 검증 절차는 다음의 4단계 조건을 부합하여야 한다. 첫째, 독립변수(학대경험)는 종속변수(자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둘째, 독립변수(학대경험)는 매개변수(자이존증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매개변수(자이존증감)은 종속변수(자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넷째, 독립변수(학대경험)는 매개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종속변수(자살)에 대한 영향이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아야 한다. 이 때 둘째 조건과 셋째 조건은 반드시 만족시켜야 할 조건이 된다. 넷째 조건인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그 효과가 0에 가깝지 않더라도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의 통제 이후 그 효과가 완전히 없어지면 종속변수는 매개변수에 의해서만 설명되는 완전매개(complete

mediation)가 되지만, 매개변수 통제 이후에도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를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매개(partial medication)가 된다.

즉, 학대경험이 자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표 7>에서 제시하였다.

표 7.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검증
Tabl. 7. Verification of Mediated Effect of Self-Esteem

	경로	β	t	P	R2	adj R2
독립변수(X) :학대경험	X→M	-.41	-10.50	.00	.16	.16
	M	1	1	0	.09	.07
매개변수(M) :자아존중감	X→Y	(β_1)	12.281	.00	.21	.21
	M	.466		0	.07	.05
종속변수(Y) :자살	M→Y	(β_2)	-10.50	.00	.16	.16
	M	-.41	1	0	.09	.07
통제	X→Y	(β_3)	8.663	.00	.28	.28
	(M)	(β_4)		0		
	(통제)	-.29	-7.398	.00	8	6
		4		0		

<표 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청소년의 학대경험과 자살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학대경험이 자살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① 직접효과 = .344

② 간접효과

(직접효과(β_3) + 매개효과($\beta_2 \times \beta_4$)) = .344 + (-.411) X -.294 = 0.4648로 나타났다. 이는 직접효과 (.344)가 간접효과(.4648)보다 작으므로 <표8>에서와 같이 학대경험과 자살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부분적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하였다. 학대경험이 자아존중감에 이르는 경로, 자아존중감이 자살에 이르는 경로, 자아존중감을 통제 하였을 때 학대경험과 자살과의 경로 모두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자녀학대경험과 자살에 매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자아존중감을 통제하였을 때 독립변수인 학대경험의 영향력이 여전히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표준화 회귀계수의 변화가 적어, 자아존중감은 자살을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매개로 확인되었다.

2.6.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 검증

조절변인으로 가족탄력성의 영향력이 미치는 정도를 고찰하고자 3단계의 위계적 조절회귀 분석을 하였다. 조절효과는 독립변수(X)와 조절변수(Z)의 교적항(XZ)을 종속변수(Y)에

회귀분석(XZ→Y)함으로써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자살생각을 종속변인으로 사용하여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X→Y)를, 2단계에서는 조절변수(Z→Y)를, 마지막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교적항(XZ→Y)을 투입하였다. 즉, 학대경험 청소년의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 검증을 <표 8>에서 제시하였다.

표 8. 학대경험과 자살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 Table 8. Moderating Effect of Family Resilience in Abuse Experience and Suicide

종속 변수	독립 변수	β	t	P	R2	adj R2
자살	학대 경험	.466	12.281	.000	.217	.215
	가족 탄력성	-.215	-5.131	.000	.046	.044
	학대경험X 가족탄력성	.401	10.207	.000	.161	.159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학대경험과 가족탄력성이 상호 작용을 하였을 때($\beta = .401, p < .05$)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교적항 (학대경험X 가족탄력성)의 β 값의 부호는 독립변수인 학대경험에 β 값의 부호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대 경험이 자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β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학대경험이 많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지는 부정적인 관계에 가족탄력성이 영향을 미쳐 자살을 감소시킨다는 의미의 분석결과로 학대경험과 자살과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이 조절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표 9. 학대경험과 자아존중감에서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 Table 9. Moderating Effect of Family Resilience in Abuse Experience and Self-Esteem

종속 변수	독립 변수	β	t	P	R2	adj R2
자아 존중감	학대 경험	-.41	12.281	.00	.16	.16
	가족 탄력성	.482	12.807	.00	.23	.23
	학대경험X 가족탄력성	-.22	10.207	.00	.05	.04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학대경험과 가족탄력성이 상호 작용을 하였을 때($\beta = -.226, p < .05$)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교적항의 β 값의 부호는 독립변수인 학대경험에 β 값의 부호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대 경험이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β 값이 증가 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학대경험이 많을수록 자아존

중감이 낮아지는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이 영향을 미쳐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킨다는 의미의 분석결과로 학대경험과 자아존중감에 있어서 가족탄력성이 조절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표 10. 자아존중감과 자살에서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
Table 10. Moderating Effect of Family Resilience in Self-Esteem and Suicide

종속 변수	독립 변수	β	t	P	R2	adj R2
자살	자아 존중감	-.43 6	-11.27 5	.00 0	.19 0	.188
	가족 탄력성	-.21 5	-5.131	.00 0	.04 6	.044
	자아존중 감X 가족탄력 성	-.39 8	-10.11 2	.00 0	.15 9	.157

〈표 10〉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과 가족탄력성이 상호작용을 하였을 때($\beta = -.398$, $p < .05$)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교적항의 β 값의 부호는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에 β 값의 부호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자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β 값이 증가 하는 것으로 보아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지는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이 영향을 미쳐 자살생각을 감소시킨다는 의미의 분석결과로 자아존중감과 자살에 있어서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증명하였다.

V. 결론

1. 요약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청소년의 53.8%가 지난 1년간 부모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학대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학대경험이 있는 심각성과 함께 신체적 학대 경험 청소년이 언어적 학대경험 청소년보다 자살을 더 많이 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런 결과는 신체에 해를 직접 당하는 경험의 고통과 두려움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난 [22] 결과가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둘째, 학대경험은 자살에 직접적인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으며 또한 학대경험은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에 부적(-) 영향을, 자아존중감은 자살에 부적 (-)영향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준 바 자아존중감이 학대경험과 청소년 자살과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학대 경험은 청소년에게 가정 내에서의 소속감과 유대감의 결여로 정서적 박탈감과 자신의 가치감의 저하로 자살을 선택하는 문제 행동이 유발된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 조절변수인 가족탄력성은 학대경험으로 낮아진 자아존중감 및 높아진 자살에 조절효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대경험으로 자살이 높아지는 부정적인 관계에 가족탄력성의 조절로 자살을 감소시키고, 학대경험으로 낮아진 자아존중감은 가족탄력성의 조절로 자아존중감이 높아져 자살을 감소시키는 가설을 증명하였다. 이것은 가족탄력성이 학대경험 청소년에게 자살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변수로서의 함의를 이끌어 냈다고 할 수 있다. 가족 중의 가장 중요한 부모로 부터의 학대는 자살까지 하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지만 가족의 탄력성 향상과 개발을 통한 완충작용의 효과로 가족의 기능이 건강해지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자아존중감의 향상은 자살을 예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지금까지의 가족탄력성을 변수로 사용한 선행연구들 중 가족 탄력성을 독립변수로한 사용한 연구 [23] 나 매개변수로 증명한 선행연구 [11], [24] 들은 많으나 학대경험 청소년의 자살연구에서 조절변수로서의 논문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대경험청소년들의 자살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매개역할과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입증함으로써, 학대경험 청소년에게 자살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얻었다. 이에 따라 가족탄력성은 자살을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2. 제언

본 연구에서는 OECD국가에서 청소년 자살률 1위인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 시기에 학대 경험이 있을 때 자살 감소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학대경험 청소년을 미리 선별 하여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개별적인 접근정책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비롯된 정서적 문제나 자살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개별적으로 표현 방법이 미숙하고 또한 직접적인 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대청소년에 대한 교원, 의료인, 청소년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종사자, 소방구급대원, 성매매 피해지원 시설 및 상담소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복지시설종사자,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아동복지법 제 26조에 의한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신고의무제도의 활성화와 정기적인 학교 내 상담을 통해 자아존중감,

가족탄력성과 자살을 선별할 수 있는 측정도구로 취학 전부터 초, 중, 고 단계별로 자살 고위험 집단을 학교에서 선별하는 것이 좋으며 현재 시범 실시 중인 청소년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모든 학교에 확대 실시하여 사전에 개입하는 전략으로 자살을 예방해야 한다.

둘째, 가정내 청소년 학대의 신고의 증대와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현행법으로 가족 구성원이 신고의무자에 포함이 되지 않았고 교육과 학대신고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가족의 특성상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신고가 되지 않은채 많은 학대경험 청소년들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가정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학대에 대한 가족들의 신고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에 가족을 포함시키고 교육대상을 학대 가해자를 포함한 그 가족 모두에게 학대예방 교육의 의무화와 학대 가해자에 대한 치료에도 가족의 적극적인 협조의무를 부과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교육의 활성화와 제도의 보완으로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보완된다면 조기개입으로 학대 상황을 초기에 발견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것이다.

셋째, 가족탄력성 향상 프로그램의 도입과 전문 인력 확보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가족 기능 강화 서비스 정책이 필요하다. 학대 발생의 원인을 보면 환경적 요소의 영향이 많으므로 가족의 생활환경 변화를 위한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서비스 영역을 보면 영역확대와 서비스인력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서비스 유형중 학대 행위자의 개별 상담서비스에 많이 치중되어 효과적인 관리가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학대 가해자를 강제적으로 상담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개선으로 가해자와 가족들의 자아존중감과 가족탄력성 향상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가족기능 강화 서비스분야에 영역을 넓혀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보호전문기관의 증설과 아울러 배치 인력 증원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전국44개소가 설치되어 서울 7개소와 경기도 8개소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도에는 1개 또는 2개의 기관이 아동학대신고 출동부터 사후관리 업무까지 질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증설하여야 한다. 또한 학대경험 청소년 및 학대행위자의 재통합과 회복, 예방을 위한 적절한 상담과 가족치료가 지속적으로 연계활동을 위해 아동학대 전문가를 다양하게 충분히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지역사회의 연계 방안을 통한 지원으로 자원봉사자제도의 활성화로 교육이 된 전문적인 자원봉사자를 통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제한점으로는 첫째, 학대경험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자살의 비율, 경제적 차이에 따른 가족탄력성의 영향, 학대 행위자의 구체적인 구분에 따른 자살과의 관계에 대한 결과를 비롯하여 자살계획, 자살의도, 자살시행의 과정을 구분해서 탐색하지 못했다. 둘째, 학대유형을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로만 나누었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집단 간에 있어서 변인간의 차이점을 분석하지 못하였다.

참고문헌

- [1] National statistical office(2012) : "Adolescent statistics." Social survey, 2010.
- [2]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2) : Cause of adolescence suicide, 2006~2011.
- [3] HaeJung Jung, "The Effects of Family Violence on Perpetration of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 (3), pp. 1-9, 2003.
- [4] YongHwan Jang · JiHae Song, "Influence of the experience of the childhood abuse on the self-esteem and suicidal thought in the adolescence period," Policy of scientific research, Vol, 20(2), 2011. "A Survey of Child Abuse in Korea," Mental Health Research, Vol.6, Institute of Mental Health, Hanyang University, 2002.
- [6] MiSook Cho, "A Study on Family Violence & Self Esteem of Adolescent." Korean society for hollistic education, Vol.7, No. 2, 2003.
- [7] NaMi Hong, "A Study on the Psychosocial Factors Influencing the Suicide Ideation Among Adolescent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1998.
- [8] Garnezy, N. "Resiliency and vulnerability to adverse developmental outcomes associated with pover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4 : 416-430, 1991.
- [9] McCubbin, H. I., and McCubbin, M. A. "Typologies of resilient families: Emerging roles of social class and ethnicity," Family Relations 37 : 247, 1988.
- [10] Walsh, F,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New York: Guilford Press, 1998.
- [11] JaeYeon Park, "Adolescent suicidal crisis and

- resilience," Ph.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2010.
- [12] Straus, M. A., "Measuring interaction 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2, 75-88, 1980.
- [13] JaeYop Kim · YunKyung Chung · JeenSun Lee,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ive Relationship in the Contribution of Adolescents Experience of Domestic Child Abuse to Suicidal Ideation," *Social Welfare Research*, No. 21, 2009.
- [14] Beck, A. T., Kovacs, M., & Weissman, A,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 Psychology*, 42, (1979).
- [15] MinSeob Shin · KwangBae Park · KyeongJa Oh · JungSul Kim, "Study of Suicidal Ide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9, No. 1, 1990.
- [16] TaeSan Choi · KyungJa Hong, "Covariance Structural Analysis about Normal Male and Femal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and Deviant Behavior,"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11, No. 2, 1997.
- [17] Coopersmith, S, "The antecedents of self- esteem," Sanfrancisco : Fremantle, 1967.
- [18] Boehm A., Wertlieb D., Bendori, R., and Fishman, MA, "Building resilience among children at risk :action research to guid community-based programs." 2007.
- [19] MiOk Kim, "A study on social competence of children and adaptation of family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 focusing on the effects of family resilience,"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2001.
- [20] GeumOk Lee, "Study of Recognition of Mother with Child in Infancy on Characteristics of Childhood Resilience Family, Resilience Regional, Society Resilience,"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Ulsan of University, 2008.
- [21] Baron, R. M., & Kenny, D. A,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ail Psychology*, 51(6), 1173-1182, 1986.
- [22] Ackard, D., & Neumark-Sztainer, D., "Date Violence and Date Rape among Adolescents: Associations with Disordered Eating Behaviors and Psychological Health," *Child Abuse & Neglect* : 26, 455-473, 2002.
- [23] InnHae Lee, "Influence of school adjustment to family resiliency and the school stress of adolescence Perceiv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Christian University, 2008.
- [24] MinKyeong Kim,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Emotions, Family Resilience, Self-Esteem and Suicide Ideation i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7, No. 2, 2012.

저 자 소개



류 보 순

2006 :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2012 :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박사과정

현 재 : 고구려대학교

보건복지과 교수

관심분야 : U-Health care,

청소년복지, 의료사회복지

Email : nd00253@hanmail.net



김 용 섭

1996 : 일본 규슈대학

교육학연구과 교육학석사

2002 : 일본 규슈대학

교육학연구과 교육학박사

현 재 :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관심분야 : 웹 접근성, 교육복지,

장애인복지

Email : yskim11@chosun.ac.kr